

평창 성화 최종 점화자 김연아? 아이스하키 단일팀?



‘월드스타’ 김연아 1순위

부산 亞계임덴 남북 공동점화

의외의 인물 등장 가능성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최고의 하이라이트인 성화 최종 점화자의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평창올림픽 개막이 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개막식의 꽃’으로 불리는 성화 점화의 주인공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성화 점화자는 개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들이 도맡아 왔다. 지난 2014년 소치 대회 때는 구소련의 ‘스포츠 영웅’이었던 60대의 이리나 로드리나(피겨)와 블라디슬라프 트레티아크(남자 아이스하키)가 점화자의 영예를 안았다.

그런 점에서 한국 동계스포츠 최고의 스타로 각인된 ‘피겨 여왕’ 김연아(은퇴)가 평창 대회 성화 점화자 1순위 후보로 꼽힌다.

김연아는 설명이 필요 없는 한국 동계스포츠의 아이콘이다.

2003년부터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로 활약한 김연아는 2004년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1위에 올라 한국 피겨 선수 최초로 공인 국제대회 메달을 땀고, 2006년 ISU 시니어 그랑프리에서는 한국 피겨 최초로 그랑프리 파이널 우승의 쾌거를 달성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는 당시 역대 최고점인 228.56점으로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고, 2014년 소치 대회에서도 은메달을 차지했다.

평창올림픽 홍보대사로 활약하는 김연아는 2011년 7월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당시 프레젠테이션 주자로 나서 유려한 발표로 평창이 삼수 끝에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2016년 대한체육회가 선정하는 한국의 ‘스포츠 영웅’에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김연아는 인지도와 호감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평창 조직위 관계자는 “성화 점화자 선정 작업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최종 주인공으로 나설지 알 수 없다”면서 “다만 김연아가 개막식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가능성은 크다”고 전망했다.

김연아 이외의 성화 점화자 후보로는 한국의 대표적인 동계올림픽의 메달발인 쇼트트랙 스타들이 있다. 쇼트트랙은 한국이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수확한 금메달 26개 중 무려 21개를 책임졌다.

동계올림픽 사상 한국의 첫 금메달 주인공인 김기훈과 여자 쇼트트랙의 전이경, 진선유 등이 성화 점화자로 나설 수도 있다.

강릉 선수촌장을 맡은 김기훈은 1992년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10여일 앞두고 31일 쇼트트랙과 피겨스케이팅 경기가 열릴 강릉 아이스아레나가 막바지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강원일보 권태명기자

알베르빌 대회 쇼트트랙 2관왕에 올랐고, 1994년 릴레함메르 대회에선 1,000m에서 금빛 질주에 성공하며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이경은 릴레함메르 대회 2관왕에 이어 1998년 나가노 대회 2관왕과 500m 동메달의 업적을 쌓았다. 2회 연속 2관왕에 5개의 메달은 전이경만이 해냈다. 또 진선유는 2006년 토리노 대회 때 여자 1,000m와 1,500m,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 3관왕 위업을 이뤘다.

의외의 인물이 깜짝 성화 점화자로 등장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이어 30년 만에 안방에서 개최하는 올림픽에 개막식 남북 공동입장과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성사된 만큼 남북 선수가 공동 성화 점화자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는 1984년 LA 올림픽 남자 유도 금메달리스트인 하형주와 북한 여자유도의 전설 계순화가 나란히 성화 점화를 한 적이 있다. /연합뉴스

빙속 4관왕 도전 크라머르 매스스타트 첫 출전

세계 1위 이승훈과 격돌

‘빙속 황제’ �벤 크라머르(32·네덜란드·사진)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처음으로 매스스타트 종목에 출전하는 이재로운 모습을 보여줄 전망이다.

처음으로 동계올림픽 4관왕을 노리는 크라머르는 출전 종목마다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의 간판 이승훈(대한항공)과 경쟁한다.

지난 31일 텔레그래프 등 네덜란드 언론에 따르면 크라머르는 평창올림픽에서 남자 5,000m와 10,000m, 팀추월, 매스스타트 등 네 종목에 출전한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종목은 매스스타트다.

400m 트랙을 16바퀴 도는 매스스타트는 거리로 따지면 장거리 종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쇼트트랙 방식이 접목돼 여러



명의 선수가 몸싸움을 벌이며 순위 경쟁을 벌인다는 점에서 아예 특성이 다른 종목으로 분류된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의 출전 기록 등을 살펴봐도 크라머르가 국제대회에서 매스스타트 경기를 뒀 사례는 없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남자 5,000m와 10,000m, 팀추월 등 세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 2개를 따낸 크라머르는

이로써 평창올림픽에서는 4관왕에 도전하게 됐다.

크라머르가 이를 달성하려면 똑같은 네 종목에 출전하는 이승훈과의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특히 이승훈이 세계랭킹 1위를 질주하는 매스스타트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시선이 쏠린다.

이승훈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남자 10,000m에서 크라머르와 함께 레이스를 펼쳐 ‘깜짝 금메달’을 목에 건 바 있다. 반대로 소치올림픽에서는 남자 팀추월 결승에서 서로 동료들을 이끌며 맞대결을 벌인 결과 크라머르가 승리했다.

크라머르는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몸 상태가 좋아 자신이 있다”며 “한국에서 내 생애 최고의 경기를 보여주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연합뉴스

김국영 “9초대 진입…亞 최고 스프린터 되겠다”

亞계임 대비 4월 400m 도전

“처음 도전하는 400m 경기인데 철저히 준비해야죠”

제주종합경기장에서 동계훈련 중인 한국 남자 육상의 간판 김국영은 오는 4월 나주에서 열리는 실업대항전에 처음으로 400m 경기에 출전한다.

그는 지난해 작성한 10초07의 100m 한국 신기록과 런던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의 성적과 경험을 바탕으로 100m와 200m를 넘어 400m까지 자신의 영역을 넓히려는 계획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짝 짝인 훈련 스케줄을 소화해내며 400m를 이겨낼 만한 몸 만들기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약 30분간의 스트레칭 이후 트랙을 달리며 몸에 열기를 더한 다음 웨이트 훈련장에서 100kg을 넘어서는 역기를 들어 올리며 하체 근력과 손발력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100m가 스피드를 요하는 종목이라면 200m는 스피드와 지구력, 400m에는 근지구력이 필요한 종목이다”고 운을 뗀 김국영은 “지난해에는 훈련으로만 400m를 뛰었다. 400m를 실전으로 뛰는 건 아직 낯설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연습 때의 기록을 실전과 비



한국 남자 육상의 간판 김국영(광주시청)이 제주종합경기장 웨이트훈련장에서 근력운동을 하고 있다.

교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400m를 지치지 않고 달리기 위한 몸을 만드는 데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400m 도전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김국영에게는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기다리고 있다.

김국영에게 있어 지금의 400m훈련은 아시안게임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발판인 셈. 더불어 한국인 최초 9초대 진입도 예상해 볼 만하다.

김국영은 “9초대 진입은 항상 진행되는

목표다.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한다면 그 목표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에는 10초 0대를 뛰는 선수들도 많고 중국 쪽에는 선수층이 두꺼워 아시안게임에서 어떻게 경기가 풀릴지 예상하기 힘들다”며 “많은 분의 성원에 힘입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 아시아 최고의 스프린터가 되겠다”며 다부진 각오를 내비쳤다.

/글·사진=김진수기자 jeans@

‘더 빠르게 더 뜨겁게’ KIA 오키나와 캠프 돌입

3월 8일까지 40명 참여

이른 개막에 시즌 준비 박차

‘디펜딩 챔피언’ KIA 타이거즈의 2018시즌 구상이 시작됐다.

KIA 스프링캠프단이 지난 31일 인천 공항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로 향했다.

캠프단은 1일부터 오는 3월 8일까지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3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시즌 준비를 하게 된다.

육식을 가리는 시합무대도 준비됐다. KIA는 14일 일본프로야구 라쿠텐 이글스전을 시작으로 3월 5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까지 12차례 연습경기를 갖고 실전 준비에 나선다.

KIA는 이번 캠프 명단을 40명의 선수로 최소화했다. 2018시즌을 꾸러갈 정예 멤버들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캠프를 치르겠다는 뜻이 담겼다.

여기에 ‘빠른 개막’이라는 변수가 더해지면서 이번 캠프는 긴장감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올 시즌은 아시안게임 휴식이 때문에 KBO리그 역사상 가장 이른 3월 24일 개막을 한다. 그만큼 시즌 준비와 구상도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캠프의 긴장감이



KIA 타이거즈의 양현종(오른쪽)과 팻딘이 스프링캠프가 마련된 일본 오키나와로의 출국을 위해 인천 공항에서 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KIA는 체력테스트 등을 통해서 선수들의 ‘준비’를 강조했다. 예년보다 빠르게 캠프의 경쟁체제가 구축될 전망이다.

2월 9일 시작되는 대만 캠프도 오키나와 캠프단을 압박하는 또 다른 요소다.

KIA는 오는 9일부터 대만 가오슝에서 퓨처스 선수단의 캠프를 진행한다. 오키

나와행 티켓을 얻지 못한 이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가운데, 연습경기 일정이 시작되면 중도 탈락자가 발생하는 등 양쪽 캠프의 명단 변경이 불가피하다.

이른 개막, 치열해진 경쟁으로 KIA의 오키나와 캠프는 빠르게, 뜨겁게 전개될 예정이다. /김여уж기자 wool@